

뉴스룸 | 최신기사

제주 우도, 교통혼잡·보행안전위험 요인은 '대여 이륜자동차'

송고시간 | 2022-02-08 09:59

고성식 기자
기자 페이지

| 주민방문객 64.7% '자동차 운행 제한 필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의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위험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여 이륜자동차가 지목됐다. 이 때문에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로 들어가는 차량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 개선 방안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인식조사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우도 주민과 우도 방문객 56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현재 우도 내 교통 환경에 대해 30.1%가 '혼잡하다'고 답했다.

교통 환경이 여전히 혼잡한 이유로 '대여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많았다.

또 보행 안전에 대해서도 40.6%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 안전이 위험한 이유도 '이륜자동차(5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우도 주민 및 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자동차 운행 제한 전과 비교했을 때 교통 혼잡 개선 정도에 대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 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이어 '보통' 30.7%, '개선됨' 21.8% 등의 순이다.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도로 협소' 58.3%, '대여 이륜자동차 운행 많음' 54.2% 순으로 답했다.

또 교통 혼잡 관리를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필요성에 대해 6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진 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이 26.7%였으며 '현 체계 유지하면서 제도 연장'도 26.7%로 같았다.

이어 '문제점 대책 마련 전제 연장' 17.9%, 자동차 운행 제한 이전 자동차 총량제 제도 복귀' 16.8%의 응답도 있다.

우도 방문객과 우도 주민 등 전체 응답자 64.7%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도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은 전세버스와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우도면 내 반입이나 신규 등록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7년 8월 1일부터 올해까지 시행 5년 차를 맞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운행 제한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8 09:59 송고

#자동차 #우도 #제한 #운행 #이륜자동차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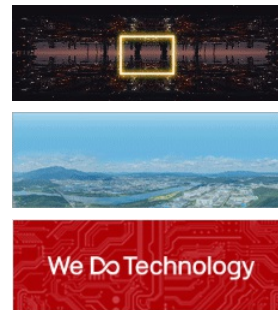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7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9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54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